

8가지 색깔있는 목포의 밤 즐긴다

木浦
夜行

‘모던 타임즈’·‘근대역사여행’ 등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선정
4월부터 준비한 근대문화 유산 역사 따라 구석구석 둘러보기
공연·전시·먹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 색다른 문화탐방 만끽

목포는 1897년 10월 1일 개항(開港)했다. 부산, 원산, 인천에 이은 4번째인 항구 도시로, 여행 코스가 생겨날 정도로 당시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근대 건축물만 300여개에 달한다.

일제강점기 수탈의 심장부였던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1900년 건립한 일본영사관 건물, 목포에 세워진 최초의 불교 사원인 옛 ‘동본원사 목포별원’(등록문화재 제340호) 등...

즐비한 근대문화유산의 역사를 따라 목포 구석구석을 둘러보는 관광 상품이 마련된다. 한밤에 항구도시 목포의 독특함을 느끼며 근대 문화유산을 즐길 ‘목포야행’도 열린다. 차별화된 콘텐츠로 전국 관광객들에게 목포를 알리겠다는 게 목포시 구상이다.

21일 목포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의 ‘2018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에 따라 진행되는 ‘문화재야행’과 ‘생생문화재’ 사업에 ‘1897 목포 모던타임즈’와 ‘목포 근대역사여행’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모던타임즈’는 문화재청의 ‘2018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에 선정된 행사로, 문화재야행은 지역 내 문화유산과 주변 문화 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밤을 테마로 특화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다.

목포시는 ‘1897 목포 모던 타임즈’라는 이름으로 오는 4월부터 14개 목포 근대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역사를 품고 밤을 누비다’라는 주제에 맞춰 8가지 테마에 어울리는 목포 문화자원을 살펴볼 수 있는 흔치 않는 기회라는 점에서 관광객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목포시는 국·도비 등 3억6000만원을 지원받아 14개 문화재를 활용 해 8가지 색깔있는 밤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근대, 수탈과 항일을 소리로텔링하고 근대건축자산과 현대예술을 융합한 프로그램으로 목포의 매력을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야경(夜景)’, 14개 목포 문화재 야간 경관 즐기기 ▲‘야로(夜路)’, 밤에 걷는 목포문화재 탐방 ▲‘야사(夜史)’, 밤에 듣고 만나는 목포역사와 문화재 체험 ▲‘야화(夜畵)’, 목포역사와 문화재가 담긴 융합예술전 ▲‘야설(夜說)’, 목포 문화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공연 ▲‘야식(夜食)’, 밤길 여행을 즐길 먹거리 ▲‘야시(夜市)’, 목포야행 기간에 즐길 특별시장 ▲‘야숙(夜宿)’, 목포에서 즐기는 하룻밤 숙박 프로그램 등으로 나뉜다.

목포시가 짚은 14개 문화재는 옛 일본영사관을 비롯해 호남은행 목포지점, 공립 심상소학교, 목포 구 청년회관,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목포진, 목포 오포대 등이다.

지역 소중한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알아가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목포시는 옛 일본영사관, 옛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등의 문화재를 활용해 ‘목포 근대 역사 여행’이라는 명칭의 ‘생생문화재 사업’을 진행한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재 문턱은 낮게, 프로그램 품격은 높게, 국민 행복은 크게’라는 슬로건에 따라 진행되는 문화재청 프로그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야행은 지역 문화재를 야간에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색다른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게 근본 취지”라며 “낙후된 원도심을 살리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8가지 색깔있는 목포의 밤을 만끽할 행사가 마련됐다. 목포시는 올해 ‘1897 목포 모던 타임즈’라는 명칭의 ‘달빛야행(夜行)’을 진행한다. 근대 문화유산이 산재된 목포 근대 역사의 거리 일대. 위부터 옛 일본영사관, 정명여고 선교사 사택,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옥단이길 골목투어에 ‘연희네 슈퍼’ 포함

6월 항쟁을 다룬 영화 ‘1987’ 촬영지인 연희네슈퍼<사진>를 목포 근대 문화유산과 함께 걸으며 둘러볼 수 있는 관광 상품이 나왔다.

목포시는 오는 27일 탐방해설 프로그램 ‘옥단이 길 골목투어’에 연희네슈퍼를 포함해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산동에 자리 잡은 연희네슈퍼는 영화 속에서 이한열 역의 강동원과 연희 역의 김태리가 슈퍼 앞 평상에서 시국의 아픔을 진술하게 얘기하는 장면이 촬영됐다.

옥단이길은 원도심에 산재된 주요 거점 19개소를 걸어서 탐방할 수 있도록 연결한 관광루트로, 총 연장 4.6km, 소요시간은 3시간 정도다.

옥단은 차범석의 작품 ‘옥단어!’에 나오는 인물. 1930년대 초반부터 해방 무렵까지 활동한 목포의 4대 명물(역전의 멜라콩, 평화극장 외팔이, 대성동 쥐약장수) 중 한 명으로 몰장수였다.

옥단이길은 큰 틀에서 유달산으로 오르는 3



개 노선과 이야기가 있는 자드락 골목길, 체험 공간 3개 노선 등 총 7개 코스로 나뉘는데, 이번 코스는 오후 2시 오거리문화센터에서 출발, 법정 스님과 고은 시인이 만난 정광정혜원, 무소유길, 유달초교, 보리마당 등을 지나 시화마을 골목길로 내려가서 영화 ‘1987’의 촬영지인 연희네슈퍼를 거쳐 인근에 위치한 일제강점기 방공호, 유곽거리 등을 둘러보도록 구성됐다. 연희네슈퍼 탐방은 이번 투어에 한해 진행된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시, 올해 정부 공모사업 495억 유치

목포시가 올해 495억원 규모의 정부 공모 사업을 유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중앙 부처의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해 40개 사업에서 국·도비 495억6800만원을 확보했다.

목포시의 최근 국·도비 확보 현황은 ▲2014년 14억6000만원(9건) ▲2015년 14억5000만원(13건) ▲2016년 98억원(18건) ▲2017년 495억6800만원(40건) 등으로 증가세다.

사업별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250억원을 비롯, ▲중·소형 선박수리 지원시스템 기반구축(국·도비 185억원) ▲산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14억7000만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8억원 ▲2017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골목형시장(자유시장) 2억6000만원 등이다.

하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처럼 소수 대형사

업으로 인해 국·도비 확보액이 상승했을 뿐 나머지 확보액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경쟁력 있는 사업 계획 발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목포시는 이같은 점을 감안,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포함한 ‘2018년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키로 했다.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현안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체계적 전략과 관리시스템, 연계사업 발굴 등에서 적극 나서기로 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사업,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발굴해 선제적·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준기자 ljc@kwangju.co.kr

목포 모든 고교생 하반기부터 무상급식

목포지역 모든 고등학교생들도 올해 하반기부터 무상급식을 받게 된다.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꿨다는 점에서 배려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목포지역 16개 고등학교 전체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시의회와 협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앞서 정의당 목포시위원회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목포지회 등은 지난달 “고교 무상급식은 현 목포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면

서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전남도교육청의 고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 발표 이후 목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은 지역은 목포가 유일하다”며 고교 무상급식 확대를 요구했었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 2011년 초등학교 전체를 시작으로 2012년부터는 중학교 전체, 저소득층 자녀 고등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해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kwangju.co.kr

호남지역 대표주자 YHB집진기 산업현장/요식업분야 환경을 확보드립니다

Y31Y AS24 YHB 31년의 역사와 기술이 요식업소, 산업현장 **미세먼지/오일미스트/연기**를 완벽히 제거합니다

미스트 크리너

하나의 바다, 네가지 기능
미스트크리너를 새롭게 개발하다



머시닝센터, CNC 선반, 밀링가공
방전기공 외 미스트 발생 공작 기계

요식업소용 전기집진기

직화구이 연기, 미스트, 미세먼지 **민원해결사**



직화구이집진기 미세먼지 배출주의보 발령
대기오염 규제 대응 해결책

6-사이클론콜렉터

더스트크리너의 새로운 창, 새로운 발명
사이클론을 한 몸에 품다



그라인더작업, 금속절단가공, 드릴작업, 아크릴가공
절삭작업, 파쇄, 석재가공 등 분진 발생하는 작업